

# 광주는 자천타천 10여명...전남은 전·현직 대결 유력

###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발걸음 빨라진 입지자들

#### 3선 연임 제한 걸린 광주 무주공산 교육계서 정치권까지 다수 거론 전남, 장만채 전 교육감 출마 준비

내년 지방선거가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교육감 선거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부쩍 빨라지고 있다. 광주는 3선 연임 제한에 따라 '무주공산'이 되면서 벌써부터 20명에 가까운 후보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전남에선 전·현직 간 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11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감 후보군 중에서 행보가 가장 활발한 이는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이다. 이 전 총장은 2018년 광주교육감 선거에서 현 장휘국 교육감을 꺾기까지 추격했다. 당시 득표율은 35.8%로 장 당선자와 차이는 2.3%p에 그쳤다. 그는 이번 설 명절 기간 출마를 시사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전 총장은 한 교육사회단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관련 신고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시민사회단체가 지원 하는 혁신교육감 후보로 나섰다 고배를 마신 최영태 광주 시민권익위원회(전 전남대 교수)도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에도 시민사회단체 대표주자를 자처하며 후보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도 진보성향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 쪽에서도 7명 정도의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정영일 광주교육발전전문위원(동강대 교수), 정희근 전 광주시의원, 정성홍 산동중 교사(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박재성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유양식 광주시교육청 금관교실 실장(전 광주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이재남 양산초 교감, 김홍식 전 일동중 교장(전 서부

교육지원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김선호 전 동아여중교 관선이사장과 이정재 전 광주교육대 총장도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전 총장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 나서 낙선했지만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2012년에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낸 전력이 있어 지역 정서상 난관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박해자 전 국회의원과 장병완 전 국회의원의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을 맡고 있는 박 전 의원은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지지기반 조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 전 의원은 역시 정치적 역량과 주위의 추천을 기반삼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강동환 전 조선대 총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내에서 자율대학평가 탈락 책임을 물어 총장직을 중도 하차한 전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박주정 서부교육지원청장과 박남기 전 광주교육대 총장도 자천타천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와는 달리 전남은 도 교육감 자리를 놓고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지만,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이 출마의 운을 띄우면서 상황이 급박해지는 분위기다. 장 전 교육감은 최근 갈수록 하락하는 전남 교육을 되살리고 싶다는 전남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가정 '교육 살리기 도민연합'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유력 대권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모임에도 참여하고 있는 장 전 교육감은 이미 서부권 5개 군을 돌면서 교육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전남 각 시·군 교육현장을 돌며 상황을 파악한 뒤 4~5월께 '교육 살리기 도민연합'을 공식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전·현직 교육감 대결이 성사되면서 현 장휘국 교육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11일 오전 광주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앞에서 정의당 광주시당 관계자들이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규탄하며 조사 범위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 공공주택 개발 광주 산정지구 5년간 거래 3920건 분석 착수

#### 광주시 '공무원 거래 찾기' 전수조사 경찰도 전담팀...내주 1차조사 발표

광주시가 경찰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및 지역내 일부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광주일보 2021년 3월 11일자 1면)과 관련해 신규 공공주택 지구 예정지인 광산구 산정지구 토지 거래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이르면 내주초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황에 따라 집중 재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 부서와 광산구 관계자로 꾸려진 조사단은 최근 5년간 산정지구 주변 공직자 부동산 거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산정동, 장수동 일대

토지와 아파트 거래 건수만 392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광주시와 광산구 등 공무원이 거래한 사례가 있는지 명단을 대조하고 있다. 시는 업무 관련자들은 물론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의 단순 비교 작업만으로는 투기 공무원들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노출을 꺼리는 공무원의 특성상 친인척이나 지인을 활용한 차명거래를 선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이 공개되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 자신이나 직계 가족 이름으로 투기성 투자를 하지 않는 게 '공무원 투자의 불문율'이라는 말도 나온다. 광주시엔 개발사업을 주도해 오랜 기간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LH 직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다는 점에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선 경찰 등 사법당국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일단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전담팀'을 32명 규모로 구성했으며, 산정지구의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공식적인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개발 대상지로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나온다. 광주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고 전남도에 촉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대권 적합도, 이재명 25% 윤석열 24% 이낙연 12%

#### 4개 기관 합동조사...尹, 15%p 뛰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를 뽑은 응답자가 25%로 가장 많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12%로 뒤를 이었다.

지난 조사에 비해 윤 전 총장은 15%포인트 급등했다. 이 지사는 1주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이 위원장은 전추와 동등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 전 총장을 지지한 응

답이 62%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를 지지한 응답자가 43%, 이 위원장을 지지한 응답자가 29%였다. 대통령감이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답변은 27%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4%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1%로 6%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1%, 국민의힘 26%, 정당 5%, 국민의당 5% 순이었다.

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 지역에서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25%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 23%, 국민의힘 28% 순이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 LH 개혁, 조직해체·신도시사업 배제는 어려울 듯

#### 정부 합동조사단 고강도 개혁 예고 규제·내부통제·불법 증정계할 듯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3기 신도시 땅 투기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정세균 총리는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

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주공)와 한국토지공사(토공)가 합병돼 탄생한 공기업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직원 9500여명에 자산 규모만 184조 원에 달한다.

정치권에서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분리하거나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지정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이런 선택지는

2·4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결국 조직 문화나 내부 통제와 관련해 기존의 틀을 깨는 규제와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LH 임직원과 그 가족의 거주 목적 외 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인 직원은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